

총여학생회 - 여성 자치단체 한마당(가칭) 기획안

보내는 기쁨 :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회

받는 즐거움 : 여성관련 자치단체,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관심있는 개인

0. 들어가며

이번 총회의 의의는 산발적으로 존재해왔던 여성 관련 모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의 지점들을 찾아나간다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실, 연세대 내에 여성학/운동 소모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회, 소모임 내지는 위원회 형식의 모임들이 있었음에도 그것들이 가시화되지 않은채 생겼다가 소멸하던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여성 운동에 대한 담론이 효과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통로가 형성되지 못했으며 논의들이 자신의 모임 내로만 '흡수'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자치단체들의 물질적 상황이 열악한 데다가, 어느 모임의 문제의식이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극을 서로 줄 수 없었다는 것도 자치단체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함께 할 지점을 찾는다는 것은 서로를 위로해주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자극과 비판을 하는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각 모임이 자기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고 전문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에 동의하지 않는 모임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방학 동안 진행하려던 연석회의가 지지부진해졌다. 방학 동안 진행되었던 회의 테이블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짚어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가 이번 총여학생회-자치단체 총회가 되었으면 한다.

1. 방학 기간 진행되었던 자치단체 연석회의에 대한 평가

방학 동안 몇 차례, 총여학생회와 약 5개의 자치단체들이 연석회의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몇 번 모이고 나서는 회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이것은 방학이라는 객관적인 상황 때문이면서도 또한 총여학생회나 각 단체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에 더욱 큰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즉, '모인다'라는 추상적인 공유지점만 있을 뿐, 자치단체들이 처해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들이 회의의 의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인다'라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임을 갖기에는 너무나 큰 '대의명분'이었다.

총회는 자치단체들의 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고민이나 문제의식, 요구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한다.

2. 당일 프로그램

①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 여성주의 문화를 실험하는 사람들 '움'

② 총여학생회 및 각 자치단체들의 소개

③ 총여학생회 총론 및 각 국 사업기획안 발표 및 예산안

▶ 총여학생회의 1년 사업기획안을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본다. 또한 총여학생회 예산 및 3월 결산을 보고하면서 자치단체들에게 지원할 예산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④ 자치단체들의 발제

▶ 여성 자치 단체들의 정체성과 전문화에 대하여

여성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서 소박하게 시작하는 여성자치단체들, 소모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작 자체에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여성문제가 워낙 광범위하고 일상에서의 치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볼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워낙에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 훈련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볼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여성학 세미나에서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성급한 실천에의 요구라기 보다 여성적 시각 훈련, 여성적 문화 형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들에 대한 토론과 가능한 실험들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듯.

▶ 각 모임의 물리적 상황(재정적, 공간적) 또는 위상

현재 자치단체들은 서로 각기 다른 위상이다. 그리고 단대 학생회와의 관계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위상의 불분명함 내지는 위상 정립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총학생회가 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보는 자리.

⑤ 지속적인 연석회의의 필요성

▶ 방학 동안 진행했던(?) 연석회의의 애초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고 지속적인 연석회의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해본다. 만약 그 필요성이 공유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만들기.

⑥ 뒷풀이!!

▶ 각 모임 대표들뿐만 아니라 성원들끼리도 친해질 수 있는 서로에 대해 조금이라고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게임(박수게임(가칭))과 함께 술자리를 만들어보자!!

3. 일정

4월 11일(토) 늦은 3시

장소는 논지당(미정)